



예수병원 안운정 외래 수간호사, 모범표창장 수상

예수병원 간호국 외래간호 안운정 수간호사가 제74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모범표창장'을 수상했다.

안운정 수간호사는 31년 동안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 섬김에까지 역할을 다하며, 수행간호정책 펠리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간호사 위상을 높이는 기여와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에 이르렀다.

신승식 병원장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국이 있어 든든하고, 원활한 외래 업무를 위한 행정과 환우 경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준 안운정 수간호사에 최선을 다한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안운정 수간호사는 "앞으로도 환자간호와 간호실무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영태 기자

“깨끗한 환경 유지하는 데 힘써주길”

완산로타리클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기증

많은 전주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덕진공원 정문에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됐다.

전주 완산로타리클럽(회장 강신석)은 22일 창립 40주년 기념해 전주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1기를 덕진공원 관리사무소 앞에 설치하고 이를 전주시에 기증했다.

전주완산로타리클럽은 전주시와 협의하여 미세먼지가 심각한 요즈음 전주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행인이 많이 오가는 덕진공원 정문 주차장 앞쪽에 봉사를 선도하는 표어와 함께 미세먼지 수치를 알리는 신호등을 설치하였다.

기동에 쓰여진 봉사 표어로 '로타리클럽'이 더 많이 알려지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를 펼치고 있는 로타리인의 활동이 홍보돼 일반인들에게도 봉사의 씨앗이 널리 퍼져나가기 바라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강신석 회장은 "본 클럽에서 기증한 이 미세먼지 신호등이 전주 시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건강을 지키는 척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우리 모두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환경을 되살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본 행사를 주관한 전주완산로타리클럽 120여명 회원들은 40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랑의 봉사를 펼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모두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환경을 되살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본 행사를 주관한 전주완산로타리클럽 120여명 회원들은 40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랑의 봉사를 펼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부안경찰서 치안현장방문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치안감)이 22일 부안경찰서(서장 박성수, 총경) 치안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군민이 신뢰하고 군민의 안전을 살피는 치안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여성청소년계 온정일 경감, 서랍지구대 박정래 경위, 경무계 고대명 경사, 자능범죄수사팀 신승기 경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변화에 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살림을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건협 전북지부-어머니봉사단, 봄맞이 플로깅 실시

본격적인 봄 등산철을 맞아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가 모악산도립공원에서 플로깅(plogging)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김민수 건협본부장 및 전북지부 임직원,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은 등반로 입대에서 버려진 담배꽂이, 일회용 컵 등 쓰레기를 줍고 등산객 대상으로 탄소중립 활동을 홍보하며 환경보호 활동을 했다.

김민수 건협 전북본부장은 "깨끗하게 정비된 모악산을 등반하며 도민들이 봄기운을 만끽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플로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건협 전북지부는 즐거움 일탈(일회용 컵 탈출) 캠페인,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캠페인, 메디체크 건강환경 가꾸기(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자봉센터, '세계 물의 날' 맞아 전주천 줍깅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전주권 대학생들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물 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나섰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전주권 대학생 연합봉사단(청바지)과 전주시에 일대 줍깅(환경정화) 및 환경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전주권 대학생 연합봉사단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천 일대와 전주대학교 등에서 '줍깅' 활동으로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을 수거했다.

또한 이상기온과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한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의 소중함과 물 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환경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샤워시간 반으로 줄이기 △양치컵 사용하기 △빨랫감 모아서 세탁하기 △설거지물 받아쓰기 등 일상생활 속 물 절약 실천을 시민들에게 독려했다. /김영태 기자



최이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건강하고 깨끗한 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미래를 위한 것이다"며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활동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 민원실 직원 친절 교육 진행

남원시는 22일,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월 친절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사에는 김재연 자치행정국장이 나서서 진솔한 경험담을 전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하며, "모든 친절은 가화만사성에서부터 시작, 가정이 편안해야 친절할 수 있고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야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며, 시의 대표 얼굴인 민원실 직원들이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친절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는 앞으로 매월 직원들의 자기진작을 위해 네가 좋아 라는 작은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직원들에게 행운이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산구, 관내 안전한 밤거리 조성

완산구는 도·시민 야간보행시 안전을 지켜줄 거리조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신동 관내 노후 가로등기구 150개소 LED등기구 교체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서신동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야간 산책로와 천변 산책길에 대한 위험요소로부터 해소시키위한 목적을 담고있다.

앞으로 서신동 교체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LED등기구 교체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우선순위는 조도 취약한 지역 및 관공지역이 될 예정이다.

임약준 완산구청장은 "완산구 관내를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나가 전주 시민과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장수군자봉센터,어르신 생신 상차려드리기 협약식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정용준)에서는 22일 장수군 여성체육회(한선미)와 장수군 독거어르신 및 소외계층어르신을 위한 생신 상 차려드리기를 위한 업무 협약식 및 간담회를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장수군여성체육회는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 및 슈카스레라 빵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생신 상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장수군 어르신을 위한 생신 상 차려드리기는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 임원들 회의로 운영되어 더욱더 뜻깊은 사업이 될 예정이다.

육종순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작년 이어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임원들이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여 홀로 외롭게 사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생신 상을 차려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리며 따뜻한 온정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마을만들기 선진사례 벤치마킹지로 인기

마을만들기 1번지 진안군이 타 기관 및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사례 벤치마킹지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22일까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전라남도 순천시청 공무원 및 순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소속 활동가 10여명이 방문해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시스템과 마을공동체 특성화 사례, 진안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사례 등을 학습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3년간 벤치마킹 기관의 방문이 잠시 주춤했지만 20여년의 이르는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많은 때는 1년에 100여팀이 넘는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 기관이 진안군을 찾고 있어 전국적으로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활동 참가자들은 마인스코리아는 시설 견학과 워크숍을 갖고, 군청 농촌협력과 마을공동체팀 김경민 주무관의 강의를 들었다.

강의에서는 진안군 마을만들기 역사와 지원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 마을만들기의 전반적인 활동 사례 등에 대해 상세히 전달됐다.

또한 대표 마을인 원연정마을로 이동하여 원연정공동체바다 상에서 점심식사 후 마을여행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시체를 경험하고 마을을 탐방하는 시간을 갖고 진안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이동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시체를 듣고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민 기자



해 상세히 전달됐다.

또한 대표 마을인 원연정마을로 이동하여 원연정공동체바다 상에서 점심식사 후 마을여행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시체를 경험하고 마을을 탐방하는 시간을 갖고 진안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이동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시체를 듣고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 적극 홍보

전주완산소방서는 응급상황 시 신속한 환자 정보를 구급 서비스에 제공하는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구급대원이 사전에 등록된 환자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심뇌혈관질환, 임신부 장애인 노인' 등이 보다 빠르고 안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사고 발생 시 환자를 이송하면서 보호자에게도 문자메시지로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 병원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가입 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리로 119안심콜서비스 홈페이지(www.119.go.kr)에 접속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자 연락처, 개인 병력 정보 등을 등록하면 된다.

개인 정보는 소방청 안심콜 수해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안전하게 보관된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많은 시민분께서 119안심콜을 등록해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오병현 반딧불교육진흥원장, 라면 1000상자기탁

오병현 대한반딧불교육진흥원장은 22일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전달해 달라며 라면 1천 상자(1,500백만원 상당)를 김제시에 기탁했다.

기탁한 라면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김제시 630개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에 골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오병현 원장은 "젊은 시절, 각지에서 고생하면서 사업을 하다 고향에 돌아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봉사뿐 아니라 장래가 촉망됨에도 학비가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을 찾아서 지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이바지해 온 오대표님의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문화재 활용 보조사업 수행 대상 직무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2일 김제시 평생학습관에서 문화재 활용 보조사업 수행단체 실무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사업비 정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운용에 대한 사업별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참여단체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다음 달 4월 공모사업 본격 추진을 앞두고 추진함에 따라 평소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호 토론했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제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전 이번 교육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2023년 석정 이정직 선정 생가를 중심으로 한 고대종가집 활용사업을 비롯한 전통산사체원, 종교 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등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됨에 따라 시민 및 관광객의 큰 호응속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